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04	10. 11	10. 18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최종열 성도	정환영 형제
성 경 봉 독	김정규 형제	최종열 성도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9월의 축복 인사 : 믿음으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선교훈련(초기 7교회, 바울사도 1차 전도지)-27년2월23일~3월2일(7박8일, 튀르키예) 신청-9월27일(주일)까지. 최상우 청년회 회장께
4. 2026년 추수감사주일 - 10월 4일 주일에 드립니다.
5. 귀국 - 추문경, 류현석 성도가정 - 9월 29일(화) 오후 6시20분, 브레멘 공항
6. 9월 생일 축하 - 김복자 권사(8일) 이한빛 자매(13일) 김문희 성도(30일)
7. 나눔의 시간 - 식사 후에는 청년회 주관 윗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김문희 성도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합계(Euro)	
온라인헌금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321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계 2 : 18 - 29(신p 401) (Offenbarung 2:18~29)	정해욱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아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을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2027년 2월 23~3월2일까지의 선교훈련을 위하여
5.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과 함께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I 성장하는 사랑과 성김의 교회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칭찬하시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사랑과 믿음과 성김이 더 깊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II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한 교회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했습니다. 사랑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과 함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울 때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고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III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는 교회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환경과 사람의 말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더욱 풍성해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며, 잘못이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한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위하여 어디까지 타협해야 할까요?
2.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지 나눠 보세요.